

##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글로벌문화산업학과	이름	신유리
파견국가	스페인	파견도시	하엔(Jaen)
파견대학	하엔대학교(Universidad de Jaen)	파견기간	1학기
귀국여부	2020.01.27 귀국예정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하엔대학교 (University of Jaen / Universidad de Jaen)
2019-2학기 수업	<p>1. Business Management</p> <p>한국어로는 '경영학 개론'이라는 이름의 수업입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인데, 교수님께서 스페인 분이라 스페인 억양의 영어 수업입니다. 처음 한달은 내가 영어를 듣는건지 스페인어를 듣는건지 구별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한 문장을 듣고 세번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어서 이미 다음 문장은 못 듣고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두세달 쯤 열심히 듣다 보니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곧잘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의의 난이도도 쉽고 한국에서 익숙한 교수님은 강의하고 학생은 수업 듣는 방식이라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수업 중 과제를 주기도 하는데 초반 한두달은 검사하시더니 점점 이름뿐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은 출석이 성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저는 본 수업과 Oral Spanish I 수업이 한시간이 겹쳐 교수님께 한시간만 늦어도 괜찮을지 여쭙보니 당연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강의에 거의 나오지 않고 시험 날에만 나오는 친구들도 많았을 정도로 출석보다는 시험에 비중이 큰 수업이었습니다. 수업에 나오지 않더라도 인트라넷에 수업 자료를 다 업로드 해주셔서 더욱 수업시간에 얼굴을 볼 수 있는 친구들은 현지 학생들 혹은 정말 공부를 하러 교환학생을 온 친구들이었습니다. 시험은</p>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봅니다.

## 2. Economic History

저에게는 정말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과목입니다. 강의 이름처럼 경제사에 대해 배울 줄 알았던 이 과목은 내내 스페인 경제사만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제니방적기라는 것에 대해 몇 날 며칠을 수업하고 토론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또한 이 수업도 스페인 교수님께서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발음을 알아듣기 힘들었는데, 그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영어실력이 좋지 않은데 발음마저 제가 공부해 온 발음이 아니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초반에 몇몇 학생들이 수강을 취소했는데 그 중 한명이 바로 저입니다. 이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토론식 수업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제에 대해 교수님께서 설명하고 그 다음부터는 학생들끼리 찬반으로 나뉘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토론이 없는 날에는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주십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발표하는 것인데, 한번 발표 과제를 주기 시작한 후로는 교수님께서 수업하는 날은 많이 없고 학생들의 발표로 수업 일수가 채워져 갔습니다. 토론, ppt, 발표, 출석 등 참여 점수가 굉장히 중요한 수업입니다. 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봅니다.

## 2. General Spanish A1.2

OT에 가면 General Spanish 수업 하나는 필수로 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권장하는 것이지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스페인어 수업은 적어도 하나 이상 듣는 것을 강력히 추천 드립니다. 하엔대학교는 Spanish course가 체계적으로 잘 짜여진 편입니다. General Spanish는 난이도 단계별로 A1.1 A1.2 A2 B1 B2 C1 C2로 세부적으로 레벨이 나뉘어 있습니다. 스페인어 수업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뉘기도 하고 한 강의를 두개의 반으로 나누어 듣기도 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만큼 부담도 적고 친구들을 사귀기 좋은 수업입니다. 과제를 종종 내주시지만 보통 15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과제들입니다. 모든 스페인어 과목의 특징은 스페인어를 스페인어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수님들께서 필요시에는 영어를 섞어서 설명하기도 하시고 바디랭귀지라는 좋은 수단이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페인어를 스페인어로 가르치는 만큼 교수님도 학생이 완벽히 알아들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스페인어로 질문하고 계속 대답하는 과정을 겪으며 스페인어가 비교적 빨리 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는 RC, LC, WR이고 기말고사는 SP까지 봅니다.

	<p>3. Written Spanish I</p> <p>제가 가장 좋아했던 수업이고 교수님께서도 본인이 맡은 수업 중 가장 좋아하는 수업이라고 하실 정도로 재미있던 수업입니다. 이 수업도 인기가 많아서 두 반으로 분반 되어있었습니다. 재미있었던 이유는 사실 단순히 재미있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어의 문법 체계를 배우는 수업으로 쉽게 설명해주셔서 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영상이나 게임을 준비해 오셔서 배운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매번 과제를 내주시지만 수업만 잘 들었다면 쉽게 할 수 있어서 15분이면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RC, LC, WR시험입니다.</p> <p>4. Oral Spanish I</p> <p>Written Spanish와 같은 교수님의 수업으로 이 반도 인기가 많아 분반 되어있습니다. 같은 교수님이라 수업 방식이 같습니다. 스페인어 강의의 특징은 6번까지 결석을 해도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6번을 넘는 결석은 교수님마다 다릅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여행을 다녀왔는데 스페인으로 다녀온 여행이면 결석이 아닌 것으로 인정 해주셨습니다. 과제는 거의 없는 편이고 시험은 5분정도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스페인어 수업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p>
<p>프로그램 운영</p>	<p>본격적인 강의를 시작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정보는 별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꼭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환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굉장히 잘 되어있습니다. ESN, EMYSET, BLE 등 교환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으며 거의 매일이 파티의 연속입니다. 하엔대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최하기도 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파티 뿐만 아니라 여행 프로그램도 매주 있습니다. 당일치기 여행부터 일주일간 떠나는 여행까지 다양하고, 스페인 국내여행 뿐 아니라 포르투갈, 모로코 등 해외여행 프로그램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p> <p>또한 스페인에 오기 전에 버디를 배정해줍니다. 버디는 현지 학생으로 영어가 가능하며 집 구하기, 건물 위치 묻기, 병원가기 등 전반적인 생활에 도움을 줍니다. 학교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미안해 할 필요 없이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저는 스페인에 오기 전에 버디를 배정받지 못했는데, International office에 가서 물어보니 이미 집을 구한 사람은 버디를 배정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할 말이 많지만 여기 규정이니 어찌 할 수 없었습니다. 부디</p>

	<p>저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버디 신청을 하고 주변 사람들 모두 버디가 정해졌는데 본인만 버디가 없다면 코디네이터에게 계속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p>
--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제가 스페인을 택한 가장 큰 이유는 날씨입니다. 스페인은 일년 내내 따뜻하고 온화한 기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옌은 남부지방인 안달루시아에 위치해있어 특히 더 따뜻합니다. 12월에도 낮에 18도였을 정도로 따뜻한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가끔 추울 땐 적응 안될 정도로 추우니 전기장판과 롱패딩을 가져갈 것을 추천 드립니다.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선글라스는 꼭 챙겨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선글라스 끼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항상 집에 놓고와 눈살을 찌푸리고 다녔습니다.</p> <p>스페인에 6개월간 살면서 우산을 든 일은 손에 꼽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스페인으로 갈 때 우산을 챙겨가지도 않았고 스페인에서 샀던 우산은 부러져서 우산은 거의 없다시피 살았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말할 때 침 튀기듯이 오기 때문에 기분은 별로지만 보통 모자를 쓰거나 그냥 맞고 다닙니다.</p>
안전	<p>오리엔테이션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안전입니다. 하옌은 소매치기, 강도, 심지어 교통마저 정말 안전하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밤 12시가 지나 새벽에 돌아다녀도 아무런지 않은 동네가 하옌입니다.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와 같은 대도시는 소매치기를 반드시 조심해야하는데 하옌의 치안은 한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한번도 겪지 못했지만 하옌 성 주변에 히스패닉들이 칼을 들고 서서 위협한다고 하니 밤 늦게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옌 성은 하옌 시내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p> <p>또한 항상 보행자가 우선인 곳입니다. 한국에서의 습관대로 차 먼저 보내려고 횡단보도 앞에 서있으면 차도 같이 멈춰서 머쓱한 상황이 종종 옵니다. 아무리 빨리 오던 차도 갑자기 멈춰서 보행자 먼저 가도록 합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O) 기타( )</p> <p>하엔대학교는 기숙사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교환학생들은 거의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거의 현지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이기 때문에 교환학생들은 들어갈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1년간 머무르는 학생들은 간혹 들어가기도 하는데 보통 아는 사람을 통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piso를 구하게 됩니다. 하엔대학교에서는 landlords와 집을 구하는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듭니다. 저는 이 그룹을 통해 집을 구했고, 스페인의 '직방'인 idealista 등에서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O) 홈스테이 ( ) 외부식당 (O) 직접 요리 (O) 기타 (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학교에는 식당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International office인 C2빌딩 주변과 B5빌딩 주변. 빨리 먹고 수업을 가야하거나 허기 채우기 용으로 좋습니다. 하엔은 카드를 받지 않는 가게들이 많은데, 소액임에도 카드로 계산할 수 있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p> <p>많은 유럽 국가들이 그렇듯 스페인도 외식보다는 직접 요리를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식료품, 생필품이 말도 안되게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식사는 집에서 해결하고 밖에서 먹는 것은 간단하게 bar에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처음에는 버스를 타고 통학했으나 하엔의 버스 시스템은 써 좋지 못하고 걸어가는 것과 시간이 별 차이가 없어서 걸어다녔습니다. 제가 구한 piso는 centro와 학교 사이인 el corte ingles주변으로, 학교까지 25분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거의 평지라서 다니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p> <p>버스요금은 1유로, 버스카드를 만들면 0.5유로입니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약 100만원	왕복, 경유

Fees		
<b>보험료</b>	한화손해보험 P5 218,454₩	인터월드에서 보험사별 가격 비교하고 선택했습니다.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조건이 있으니 잘 확인하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숙소	월세 223유로	보증금 223유로
식비		
교통비		
책값		
기타1		
기타2		
합계		

## 5. 출국 전 준비사항

짐은 정말 필요한 것만 챙기길 바랍니다. 옷도 버릴 옷만 가져가세요. 스페인에도 한국보다 싸고 좋은 옷 가게들이 많으니 스페인에서 사면 됩니다. 자라, h&m이 스페인 브랜드라 그런지 한국보다 훨씬 싸게 팝니다. 저는 최소한의 것만 가져간다고 가져갔는데 짐이 엄청 불어나서 옷만 따로 택배를 보내야 할 정도였습니다. 제발 옷은 버릴 것만 가져가주세요!

한식도 바리바리 싸울 필요 없습니다. 하엔에도 작게 중국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고 한시간 거리에 있는 그라나다에서도 쉽게 고추장, 참기름 등 한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줄 작은 선물들을 여러 개 챙겨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편지지와 인스턴트 커피, 마스크팩 정도만 가져갔는데 정말 후회됩니다. 한번 쓰면 사라지는 것 말고 복주머니나 손거울 등 한국적인 기념품들을 준비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이 아무리 날씨가 따뜻하다지만 갑자기 추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 땐 더 춥게 느껴지니 전기장판 챙기시면 유용할 것입니다. 스페인에는 난방시설이 라디에이터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심지어 라디에이터는 정말 그 철 덩어리만 따뜻하지 열기가 방안을 가득 메우지 않습니다. 전기장판 잊지 마세요!!

## 6. 본인 소감 및 평가

유럽에 있는 학교로 교환학생을 가게 된다면 영어는 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영국을 제외하고는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고 영어를 잘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어를 모국어처럼 완벽하게 구사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스스로 편견만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엔대학교는 비록 시골에 있어 여행을 하기는 불편하지만 분명 그것을 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골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못해 자연스럽게 스페인어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유럽에 이렇게 안전한 도시가 있나 싶을 정도로 평화롭고 사람들이 따뜻한 도시입니다. 비록 몇몇 teenager들은 니하오, china 등 인종차별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정 많고 따뜻한 사람이 더 많은 동네입니다.

스페인에는 시에스타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낮 시간에 너무 덥기 때문에 세시간정도 낮잠을 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아서 너무 화가 났지만 이제는 한국에도 하루 빨리 도입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물가가 굉장히 싸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하엔은 스페인에서도 물가가 싼 편입니다. 맛있는 음식들이 껌 값에 판매되니 살이 엄청 찐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찐 살은 학교 헬스장에서 빼면 됩니다. 헬스장은 한달에 10유로정도이고 한학기에는 더 쌌습니다. 또한 헬스장을 등록하면 요가, 필라테스, 줌바, 코어운동, 사이클 등 다양한 수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으니 뽕 뿜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는 비록 스페인어는 못하지만 아예 놀러 살고 싶었을 정도로 좋았던 기억이 가득한 동네입니다. 교환학생을 생각하는 분들 중에 유럽 혹은 스페인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하엔대학교를 강력히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더 궁금한 것들은 카카오톡 ID uni9763으로 연락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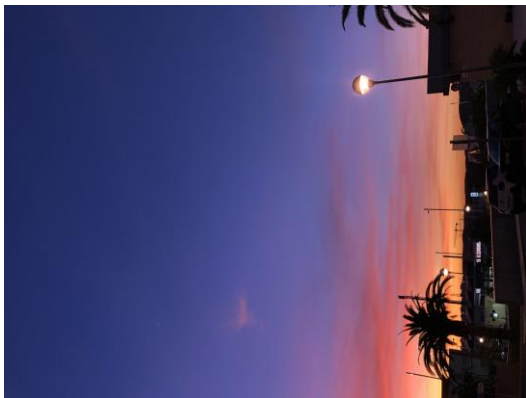
	
<p>크리스마스의 하엔 성당</p>	<p>거울 같은 공원. 피크닉 꼭 가세요!</p>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하엔에서는 더 싸답니다



ESN카드로 버스, 항공 등 다양한  
할인혜택 받을 수 있어요



하엔은 야경이 죽여준답니다



규모 장난 아닌 하엔 축제